

스웨덴, 오스트리아의 관련 협회, 업체,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참석

- 김주한 선임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I. 출장 개요

□ 개요

- 출장자 : 김주한 선임연구위원
- 출장지역 : 스웨덴, 오스트리아(스톡홀름, 그라츠)
- 기간 : 2012. 9.20 ~9.29 (8박 9일)
- 방문 목적

스웨덴, 오스트리아의 관련 협회, 업체,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참석

□ 일정

일시		구분
9월 20일(목)	12:30-20:25	서울 → 프랑크푸르트(독일)→스톡홀름(스웨덴) 이동
21일(금)	10:00-12:00	스웨덴 철강협회(Nilson Gert, vice president)
	14:00-16:00	Raw material group(Anton Lof, senior iron ore analyst)
24일(월)	10:00-12:00	SSAB (Bo-Erik Pers, 전SSAB 마케팅임원, 현 JERNKONTORET, president)
	14:00-16:00	Outokumpu AB 방문(구조조정을 이유로 방문 거부)
25일(화)	07:40-12:20	스톡홀름(스웨덴)→뮌헨(독일)→그라츠(오스트리아) 이동
	14:00-18:00	세미나 등록 및 개막식
26~27일	09:00-18:00	세미나 참석
28일(금)	14:00-	그라츠(오스트리아) → 프랑크푸르트→
29일(토)	12:20	서울 도착

II. 출장결과

1. 스웨덴 방문 면담 요지

□ 스웨덴 철강협회 기능과 역할

- 15세기부터 스웨덴에 많은 철강업체들이 존재하였으며, 17세기 중반 협회가 설립될 당시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

· 그 당시 철광석, 원료탄 등 원자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경쟁력 유지

- 스웨덴 철강협회는 설립 초기에는 철강회사의 위험자본(Risk Capital)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역할, 회사간의 가격조절 기능, 다른 나라의 정보 수집, 철강회사의 R&D 조절, 국왕과 정부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 유지 역할 등 다양한 업무 담당

· 현재는 은행역할, 국왕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역할은 폐지.

- 현재 철강협회의 주된 역할은 첫째 R&D 지원, 둘째 환경 정책 등 관리(새로운 법이 발의되면 철강산업 적용여부 검토), 셋째 무역 지원, 넷째 인력 양성 및 관리 등으로 대별됨.

- 철강협회(중앙조직)는 프로젝트 발주, 산하 14개 부서에서 추진하며 14개 산하부서는 각 부서에 포함된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.

- 연구개발 펀드는 정부와 산업계가 1:1의 비율로 조성. 단, 정부 자금은 산업계로는 지원되지 않고 대학 및 연구소에만 지원

- 스웨덴 철강산업의 R&D는 산학 협력체제로 3개 공대와 2개의 기관에서 추진

- 3개의 공과 대학은 왕립 공대(Royal Institute of Technology), Lulea 대학(탄광지역), Dalarna 대학(산업지역)이고, 2개 기관은 철광석 협회와 철강 협회임.

□ 철강업의 위기를 전문화로 극복

- 스웨덴은 17세기말 원자재가 감소하자, 18세기 초부터 제품의 고급화 추진. 스웨덴 철강이 세계 시장에서 고급강 부문에서 명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됨.

- Sandvic은 STS에서, SSAB는 공구강, 그리고 Hoganas는 iron powder 부문에서 경쟁력 보유

- 경쟁 국가들로는 STS에서는 한국의 POSCO, 핀란드의 Ruukki, 독일, 벨기에 등이며, 중국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 경쟁자는 아님

- 스웨덴 철강업체들은 보편적으로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략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특수강·고급강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대규모업체보다 효율적임. 또한 스웨덴은 업체간의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강점 보유.

- Ovako사는 회사규모는 작으나 가공기술이 우수하며 디젤엔진 Injector의 세계적인 기술 보유. 또한 Ovako사는 볼베어링 제조사인 SKF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볼베어링 관련 특수기술 보유

- 세계적 공구강 제조업체인 Uddeholms AB는 공장인력은 900명에 불과, 그렇

지만 판매인력은 2,000명에 이릅니다

- 스웨덴 철강업체들은 업체 간 경쟁보다는 상호 기술제휴, R&D 등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가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

□ 정부의 정책과 역할

- 스웨덴 정부는 역사적으로 산업 부문별 지원은 없었다고 하며,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강조

- 정부 지원이 있다면, 대학, 연구소 등의 R&D 부문과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로 설비교체 시 세금 보조하는 정도였음.

- 1938년 잘츠요바덴 노·사·정 협약으로 산업별 동일 직종, 동일 임금 적용의 법제화와 철강산업 영향

-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로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용주와 피 고용자 간의 믿음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고, 협약 이후 산업이 안정화된 기반으로 작용

-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스웨덴은 2차 대전 경험이 없었고 탄탄한 경제 상태였으므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.

- 철강산업 관련 영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함. 아마 오래된 일이어서 관련 정보내지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.

- 스웨덴 최대 철강업체인 SSAB의 설립과 정부의 역할

- 1970년대 스웨덴 철강업계에 불황이 오기 전에 스웨덴은 조선업계 세계 1위 국가였으나 조선시장이 일본과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경쟁력 상실, 조선업계는 모두 부도

- 철강업계는 생존을 위해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SSAB는 새로운 HS grade 철강으로 시장 전환

- 1978년 조선업 부도로 3개의 대형 철강사(Granages, NJA, Stora)가 부도나자

스웨덴 정부가 이들을 묶어 공기업화 하며 3개사를 1개사 즉, SSAB(Swedish Steel AB)를 설립하고 10년간 재정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.

□ 무역 경쟁력

- 스웨덴 철강 생산의 약 95%가 세계 150개국으로 수출되며, 수출금액은 2011년 560억 크노르(SEK)에 이룸
 - 무역은 물량 면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한 규모이나, 금액 면에서는 수출이 수입의 두 배로 고가품 수출, 저가품 수입 구조
 - 수입의 대부분은 동구 국가로부터 이루어지고, 일부는 서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음
- 스웨덴 철강산업의 고급·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유지 요인은 전문화와 과당경쟁 방지 정책에 주로 기인
 - 35~40년전 스웨덴 철강산업의 위기시 정부의 보조로 각 회사별로 전문화 추진, 철강산업내의 경쟁 제거 및 상호 협조 분위기 조성
 - 스웨덴의 범용강재 생산은 5년 전부터 거의 중단, 원자재가 저렴할 때 생산했으나 원료가격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.

□ 인력 확보

- 철강업계의 인력 확보 및 양성과 관련, 스웨덴도 한국과 같은 사정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
 - 철강업계의 인력 확보 문제는 전 세계가 동일한 현상으로 독일, 프랑스도 비슷함. 특히 브라질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함.
 - 스웨덴은 장학금제도, 대학교육 프로그램 별도 설립, 철강업체의 지명도 높여 좋은 인지도 유지, 철강홍보 강화, 철강업계 종사자들을 학교로 파견하여 젊은 인재 유인 노력

*스웨덴 철강업체가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법의 하나로 모집 인원을 줄여 경쟁률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며, 한번 철강업체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근무하는 편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함. 다만 끌어들이는 방법이 문제라고 언급

□ 기타 사항

- 공급과잉과 관련,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유럽에서도 신규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

· 유럽에서도 범용강재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크며, 범용강재의 경우 원자재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

· 철광석 가격은 일시적으로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으나 그 후에는 100~150달러 선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.

- 스웨덴 철강업체의 시장개척은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복합적인 방법 구사

· 스웨덴은 느리고 조심스럽고, 바이어도 어렵게 찾는 문화이지만,

· 계층, 위계질서가 없는 문화로 인해 누구나 쉽게 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, 이는 글로벌 마케팅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.

· 철강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항상 내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주변 국가들로 진출하는 과정을 거쳐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전략을 편다고 함(예로, 핀란드→노르웨이→독일→영국→세계)

-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평가로는,

· 사건을 전제로 한국 철강업체 특히 포스코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전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, 투자가 많은 업체들은 위기가 왔을 때 견디는 힘이 있음을 강조

□ 시사점

- 스웨덴은 철강산업은 원료의 고갈, 수요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자 고급·고부가가치화로 난관을 극복
 - 기존의 철강업체를 고급강, 특수강업체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
- 이를 위해 스웨덴은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R&D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
 - 전통적인 철강강국으로서 전문 인력이 많이 포진해 있고 R&D 관련 역할 등 철강협회의 위상이 비교적 높다는 인상을 받았음.
- 저급강을 수입하는 대신 고급·고부가가치 강재를 수출하는 정책 및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질 좋은 고용과 높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

2. EEC 세미나 참관 요지

- 유럽 전기로제강 세미나는 매년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세미나로 이번이 10회 세미나임.
 - 유럽 전역에서 약 500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세미나이며, 철강업체는 물론 철강설비업체, 원료업체 등이 참석 대상임.
- 세미나 구성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오전까지는 산업관련 경기 동향 및 전망 등을 포함한 시장 동향이 주요 이슈로 제기됨
 - 세계 경기동향과 관련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, 원료시장 동향 및 전망 등
- 둘째 날 오후부터는 주로 설비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동향, 신기술 채용 설비 동향, 셋째 날에는 세부 신설비 및 신기술의 효율성, 생산성,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해 발표가 이어지도록 구성
 - 신설비 및 신기술은 주로 주요 설비업체들이 주도하며, 자사의 신설비 및 기술 개발을 적극 홍보하는 차원의 발표가 주류.
 - 국내 동부제철에 전기로 설비를 제공한 이탈리아의 Danieli, Tenova 등 낮익은

업체들이 활발하게 신기술과 신설비를 소개하고 기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느낌이었음.

□ 유럽이 재정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세미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생각보다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, 많은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와 토론이 이어졌음.

-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남부 유럽과는 달리 북부 유럽 철강업계는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덜한 느낌이었음.

- 세미나를 주도하는 Siemens VAI, Danieli, Tenova 등 설비업체는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며, 이번 세미나를 주도